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19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21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불교중흥 ·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전국을 다녔던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에 대한 선언이었다. 사진은 순례 회향을 하루 앞둔 10월 26일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순례단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2면 · 칼럼 6면〉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할렐루야" 광신도, 사찰 방화 '충격'

남양주 수진사, 10월 14일 화재로 산신각 소실

범인 B씨, "신의계시 받았다"
돌로 불상 훼손 등 가해 지속
"증오범죄 참사" 시각 지배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확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개신교계 광신도의 고의적인 방화로 총화종 前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남양주 수진사의 전각 한 동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범인은 이미 1년 가까이 사찰을 맴돌며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하거나 사찰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지속적인 훼불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를 외치고 기독교 성서인 성경 구절을 외면서 스님과 신도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왜곡된 신앙에 기인한 명백한 훼불이자 '증오범죄'로 인한 참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증오범죄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 총화종 前 종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7시 20분경. 사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가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 불로 사찰 전각 6동 가운데 산신각 1동이 골조 일부만 남긴 채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다. 산신각 소실로 인한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날 화재가 개신교계 광신도에 의한 의도적 방화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화범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수진사를 맴돌았던 인물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범종각에 게재된 법회 안내 현수막 두 개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경내에 조성된 와불 위로 올라가거나 호신불에 돌을 던져 훼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습적인 피해를 주고 사찰 대중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가량 저녁마다 사찰에 찾아와 범종 위에 올라타고 성경 구절을 외우며 타종의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법회를 방해하고 신도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하는 등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B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조사에서 "법당에 있는 촛불로 방석에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진사 방화가 왜곡된 종교관으로 인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B씨가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함이 감돌고 있다. B씨의 전적을 알고 있는 신도들은 그가 오히려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짧은 형량을 받는다면, 보복을 위해 수진사에 찾아와 더 심각한 행위를 하지 않겠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수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오 스님은 "범인이 방화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그동안 사찰에서 지속해 온 상습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단순히 재산손실에 따라 사건을 보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은 "사찰 방화라는 폭력적 행위의 근간에 왜곡된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는 점이 충격"이라며 "비록 개인의 일탈이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이 없는 행위는 우리 종교인들이 노력해 온 종교간 평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차별없는 사회는 서로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서 나온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책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는 '불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함' 제하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사찰 당국과 불자분들에게 방화범과 같은 한 개신교인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종교평화를 외치는 신학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명상 대가들 한자리서 코로나 마음치유 법석

한국명상총협회, 11월 14일 부산 벡스코서
각산 스님 · 이시형 박사 · 베르나르 신부 강연


각산 스님


이시형 박사


베르나르 신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우울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팍팍한 사회 속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고점을 찍고 있다.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이 시대, 고통 받는 중생들의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정신의학, 영성, 명상 분야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국민 힐링 법석을 마련한다.

한국명상총협회(운영위원장 이용태)는 11월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명상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한베경제문화협회(회장 전종호)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부산시민과 국민의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개최되는 만큼, 부산해운대구청 후원으로 참가비 없이 진행된다.

특히 강연자로 국민 의사 이시형 박사(세로토닌 문화원장)와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 前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베르나르 신부가 나서 주목된다. 세 명의 강연자는 이 시대 학계와 종교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로, 정신의학적 관점과 명상법, 영성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 주최 측은 "명상 힐링 콘서트는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대국민 응원의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명상 콘서트는 오후 2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첫 번째 강연자는 이시형 박사,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명상특강에 나선다. 이시형 박사는 현대의학이 밝혀낸 면역력의 핵심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개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음식과 생활습관, 건강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자로는 베르나르 신부가 나서 '참선 속의 행복명상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베르나르 신부는 프랑스 보드로 의대 재학 중 예수회 사제가 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의 문제를 직시해 그 안의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각산 스님이다. 각산 스님은 참불선원장이자 한국명상총협회장,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으로 간화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불교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법과 지혜 통찰' 주제강연을 통해 마음의 치유로 몸의 병까지 치유하는 고대 불교명상의 정혜쌍수법인 호흡명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님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상태를 대비해 면역수치를 설명한데 이어, 매일 명상 참선의 생활화로 현실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통해 타고난 면역체계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과도한 스트레스과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원은 마음관찰의 간화선과 호흡명상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명상과 정신의학 영성 등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물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시민을 위한 코로나 치유마당 '명상대강연'을 개최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 · 선무도 · 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승려연수 인증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일 ~ 11월 20일(금)	12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담당 : 홍선영 행정관) ☎ 02-2011-1817
- 우)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참조

불기2564(2020)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